

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

CATI & ARS

제72차 CATI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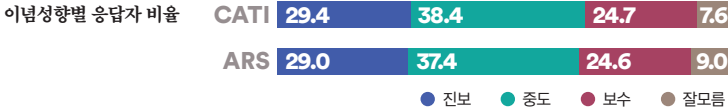
제87차 ARS조사

여론조사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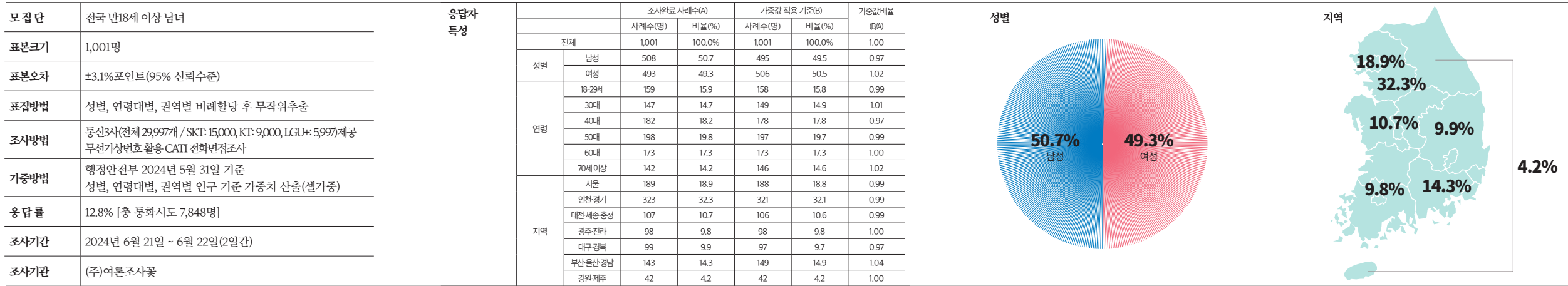
정례여론조사

보고서

CATI & ARS



CATI 조사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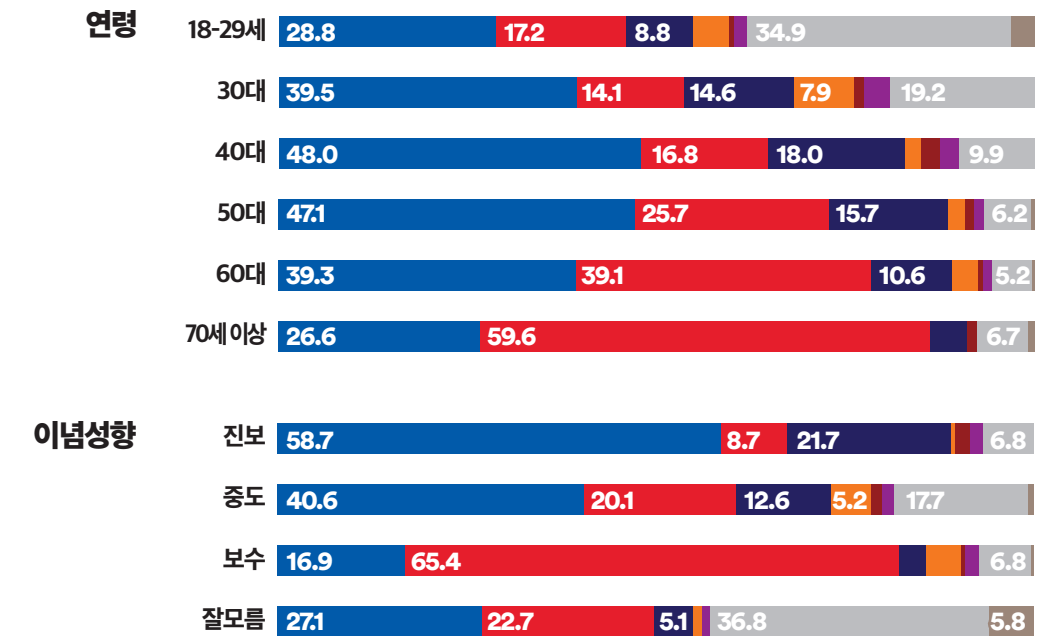


ARS 조사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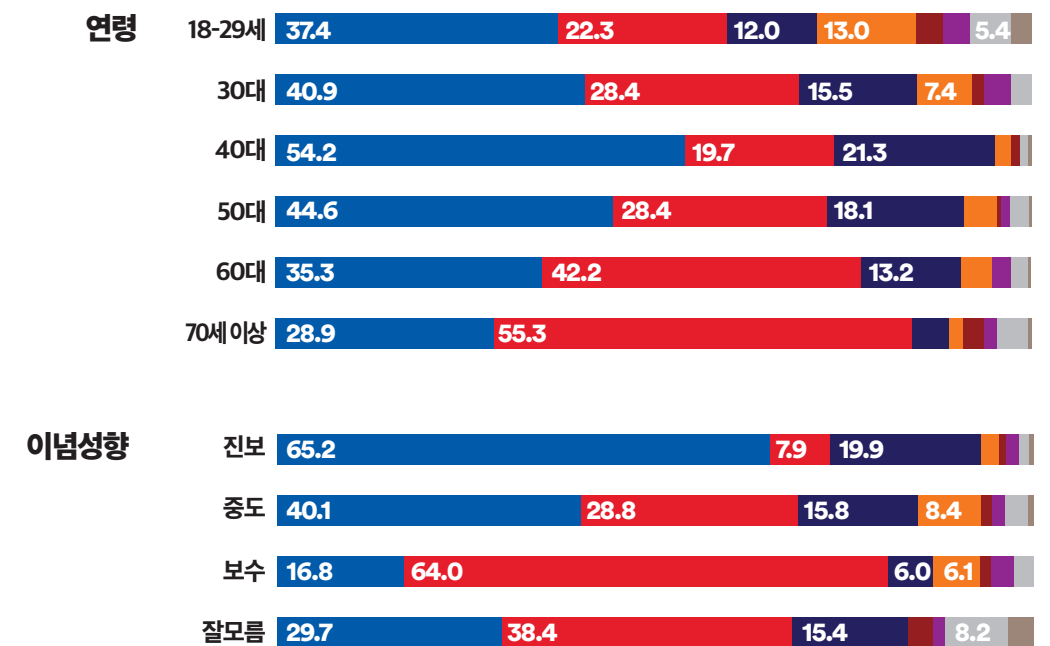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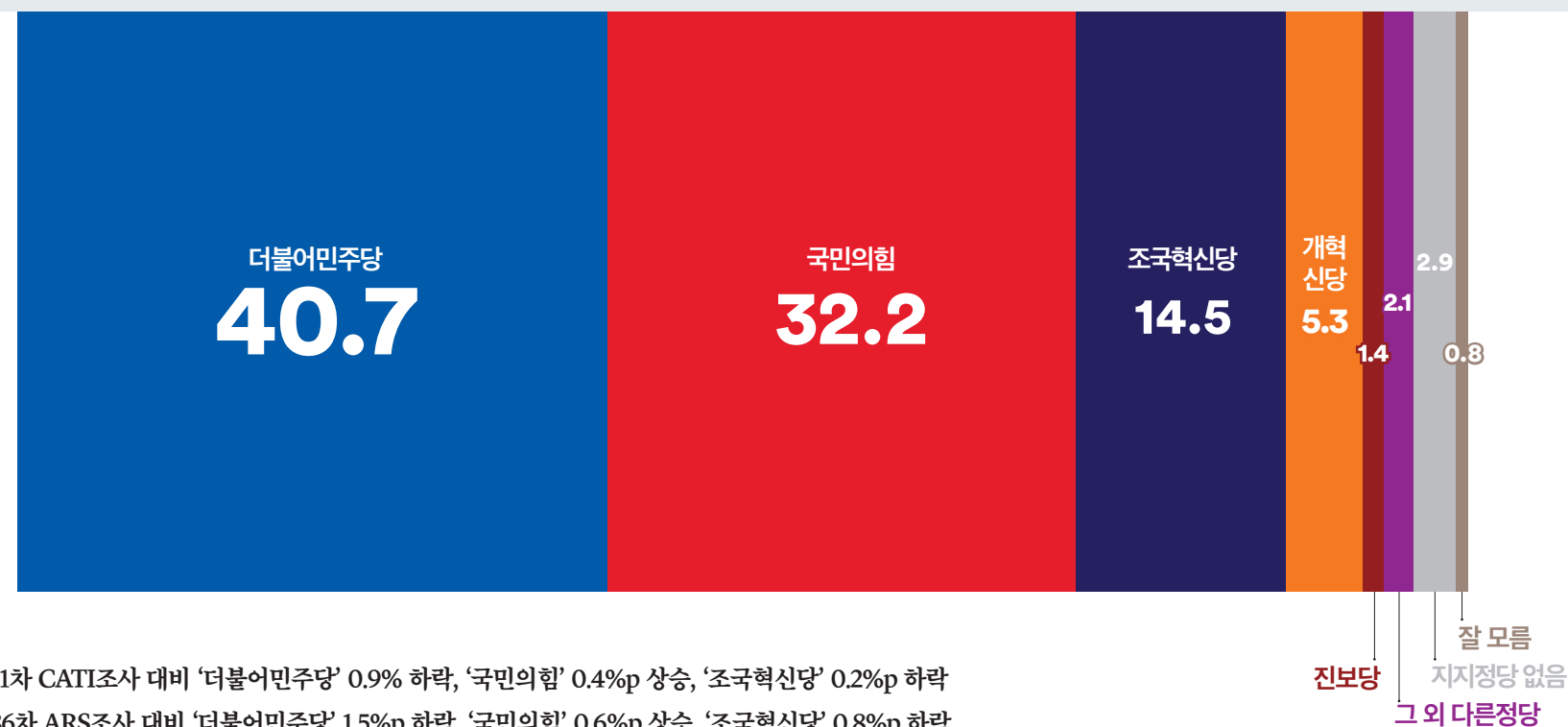


Q.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?

CATI



AR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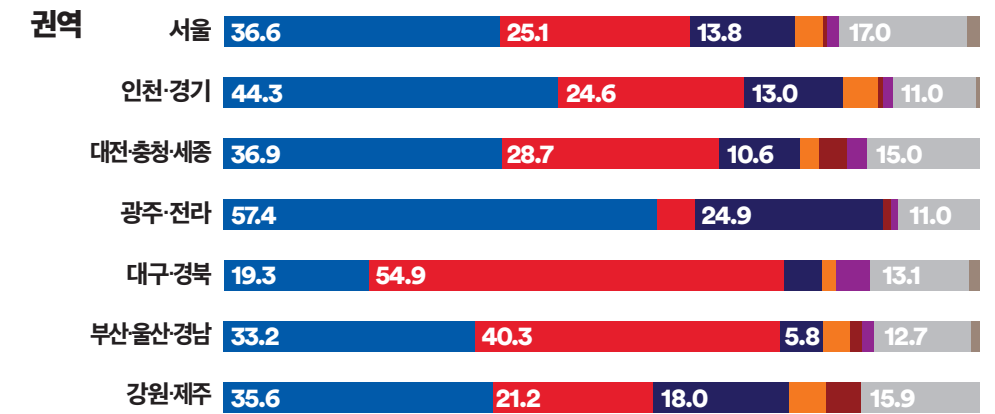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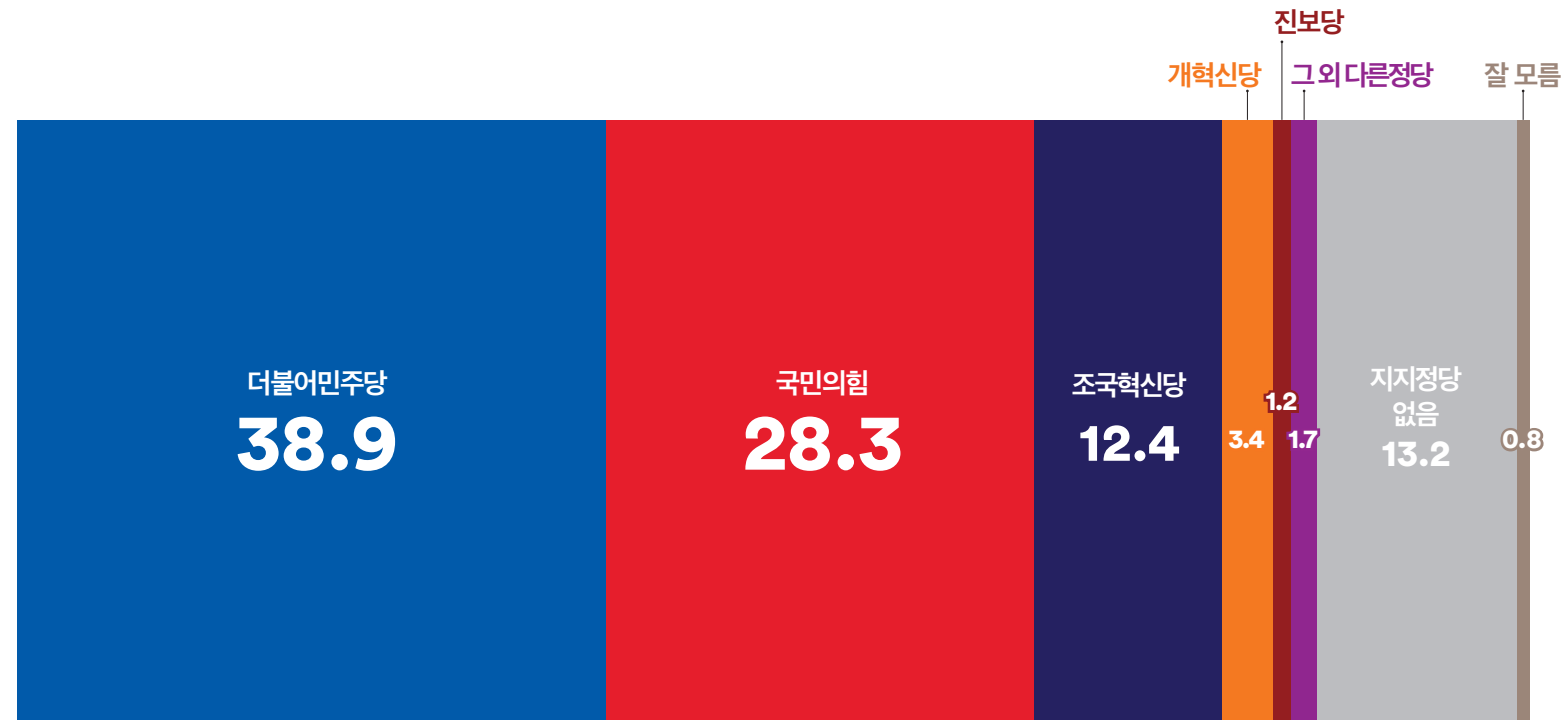


71차 CATI조사 대비 '더불어민주당' 0.9% 하락, '국민의힘' 0.4%p 상승, '조국혁신당' 0.2%p 하락
 86차 ARS조사 대비 '더불어민주당' 1.5%p 하락, '국민의힘' 0.6%p 상승, '조국혁신당' 0.8%p 하락
 '더불어민주당': '국민의힘' 간 격차는 CATI 10.6%p, ARS 8.5%p(지난주: CATI 11.9%p, ARS 10.6%p)
 '더불어민주당'+ '조국혁신당': '국민의힘' 간 격차는 CATI 23.0%p, ARS 23.0%p(지난주: CATI 24.5%p, ARS 25.9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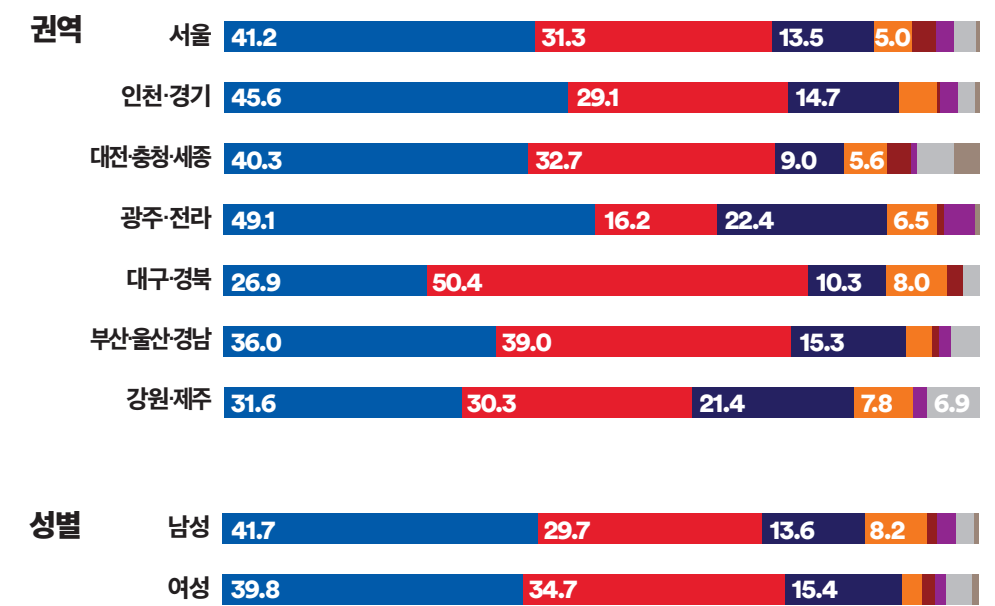
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
진보당 그외 다른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

Q.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?

CATI



AR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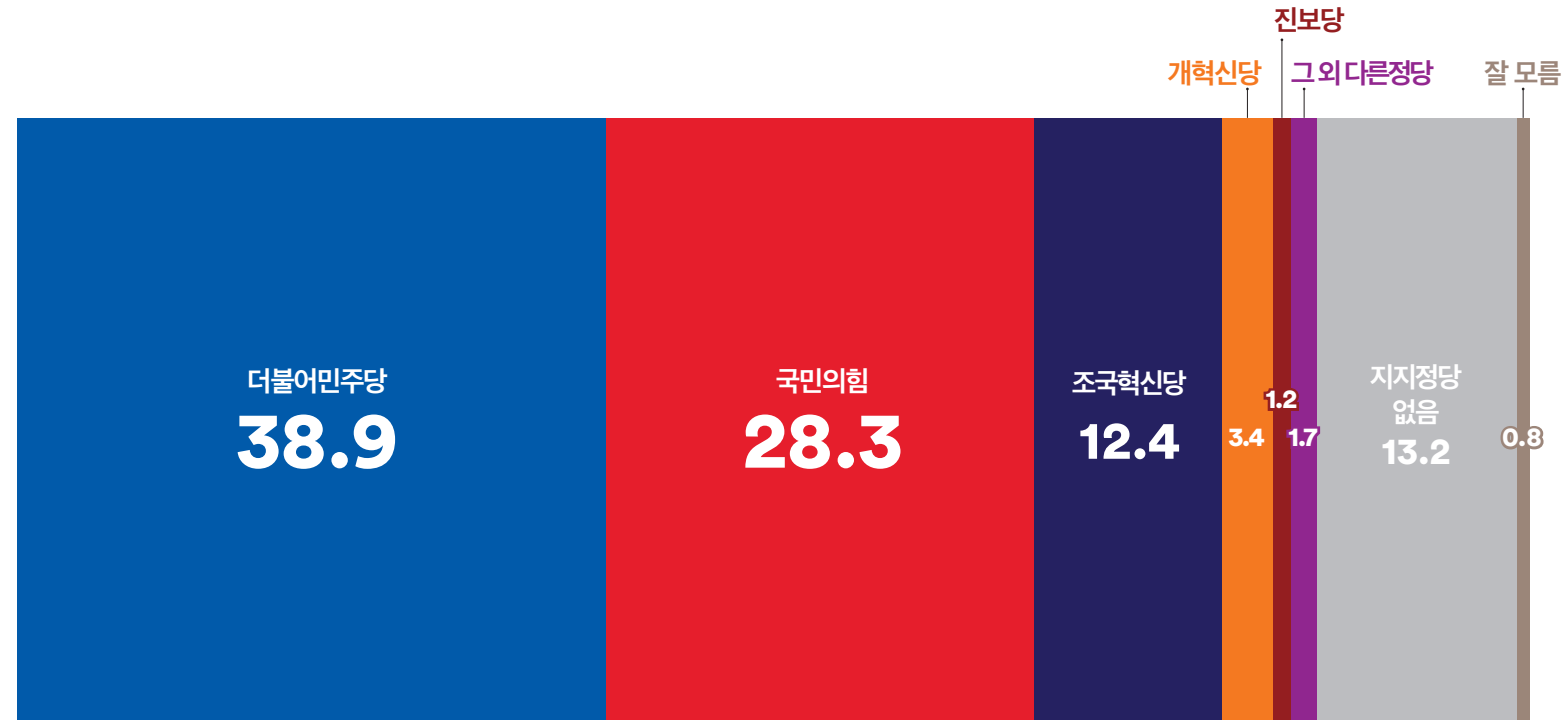
‘국민의힘’·‘더불어민주당’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‘더불어민주당’이 경인권 및 호남권에서 우세
 ‘국민의힘’·‘더불어민주당’+‘조국혁신당’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수도권 및 호남권(CATI 강원·제주 포함)에서 우세
 ‘국민의힘’은 TK권에서 ‘더불어민주당’ 단독, 범야권 합산 지지율 대비 앞서거나 우세

■ 더불어민주당
 ■ 국민의힘
 ■ 조국혁신당
 ■ 개혁신당
 ■ 진보당
 ■ 그 외 다른 정당
 ■ 지지정당 없음
 ■ 잘 모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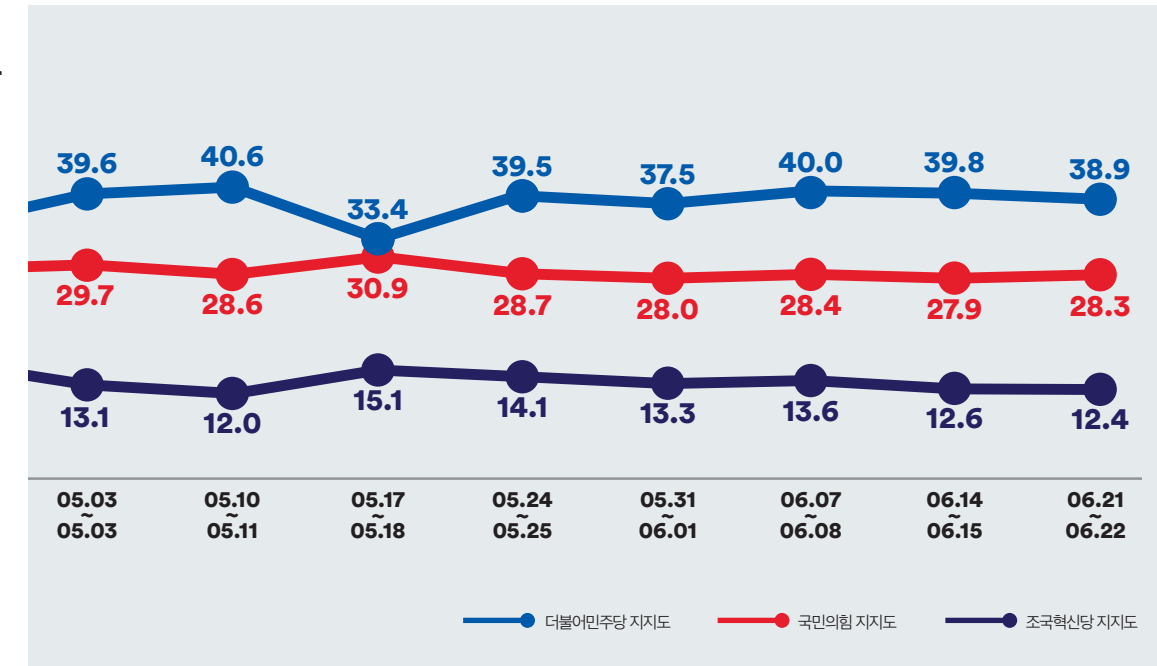


Q.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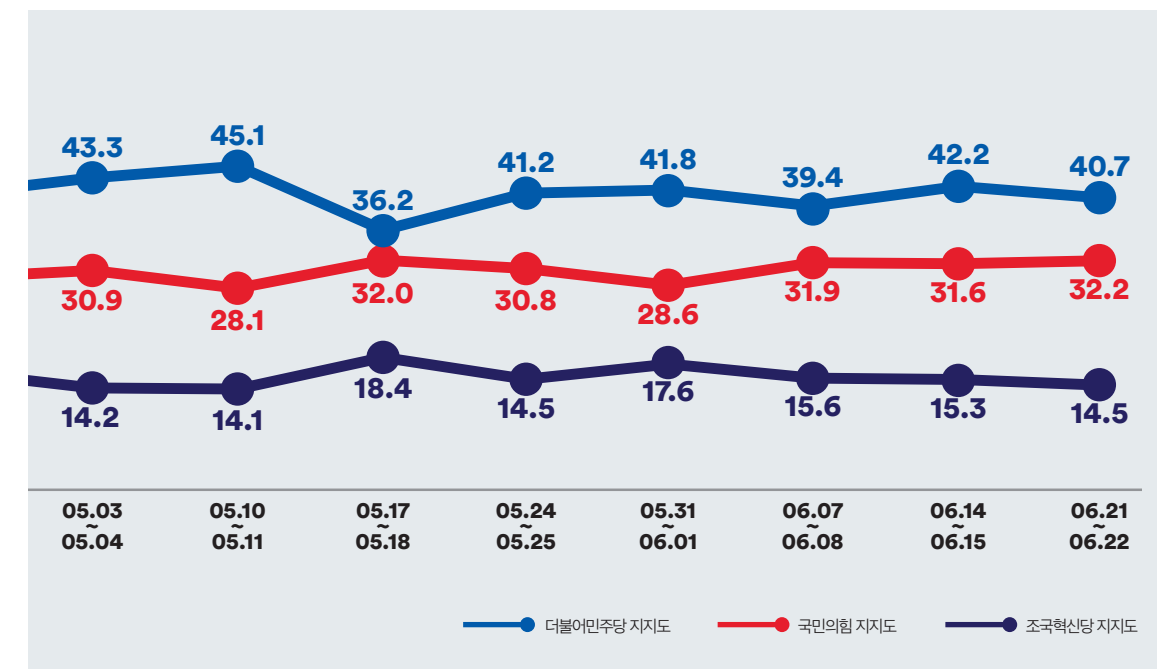
CATI



주차별
정당지지도



ARS



CATI조사의 중도층은 '더불어민주당' 40.6%, '국민의힘' 20.1%, '조국혁신당' 12.6%의 지지율을 보임

ARS조사의 중도층은 '더불어민주당' 40.1%, '국민의힘' 28.8%, '조국혁신당' 15.8%의 지지율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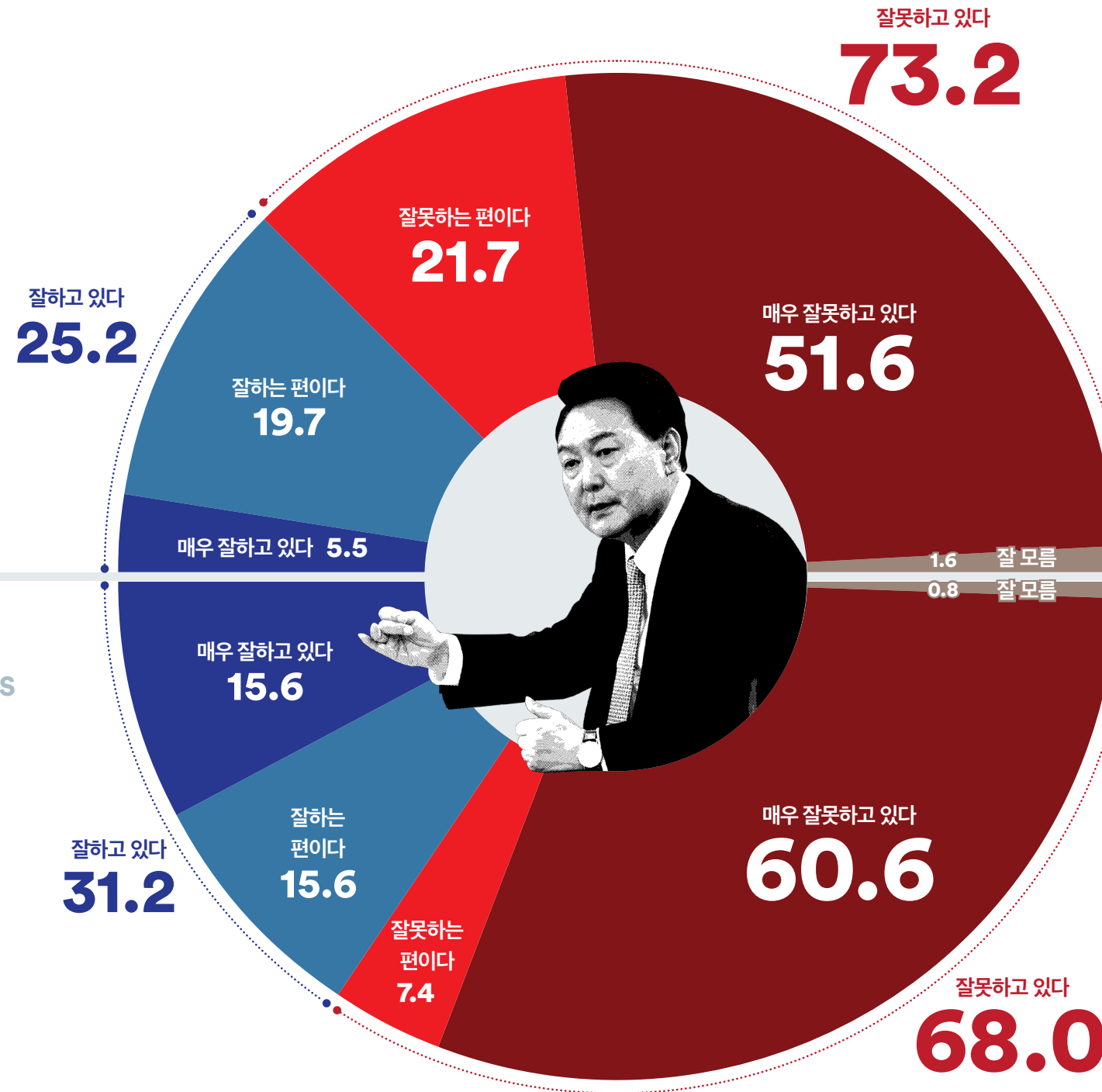
중도층에서의 양 세력('더불어민주당'+ '조국혁신당': '국민의힘')간 지지율 격차는 CATI 33.1%p(71차: 27.8%p), ARS 27.1%p(86차: 35.0%p)

■ 더불어민주당 ■ 국민의힘 ■ 조국혁신당 ■ 개혁신당
■ 진보당 ■ 그 외 다른 정당 ■ 지지정당 없음 ■ 잘 모름



Q.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
CAT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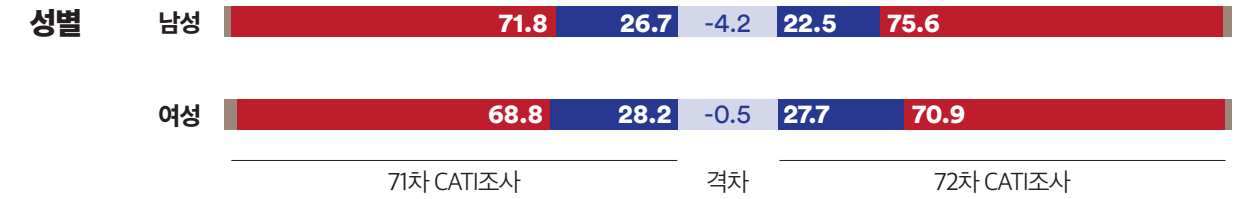


지난 71차 CATI조사 대비 '긍정' 평가 23%p 하락, '부정' 평가 29%p 상승(격차 48.0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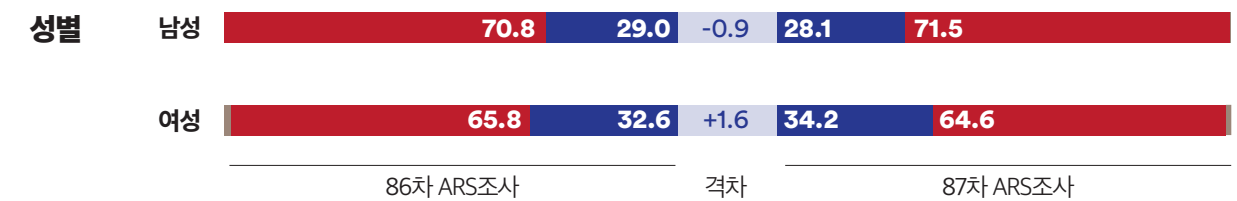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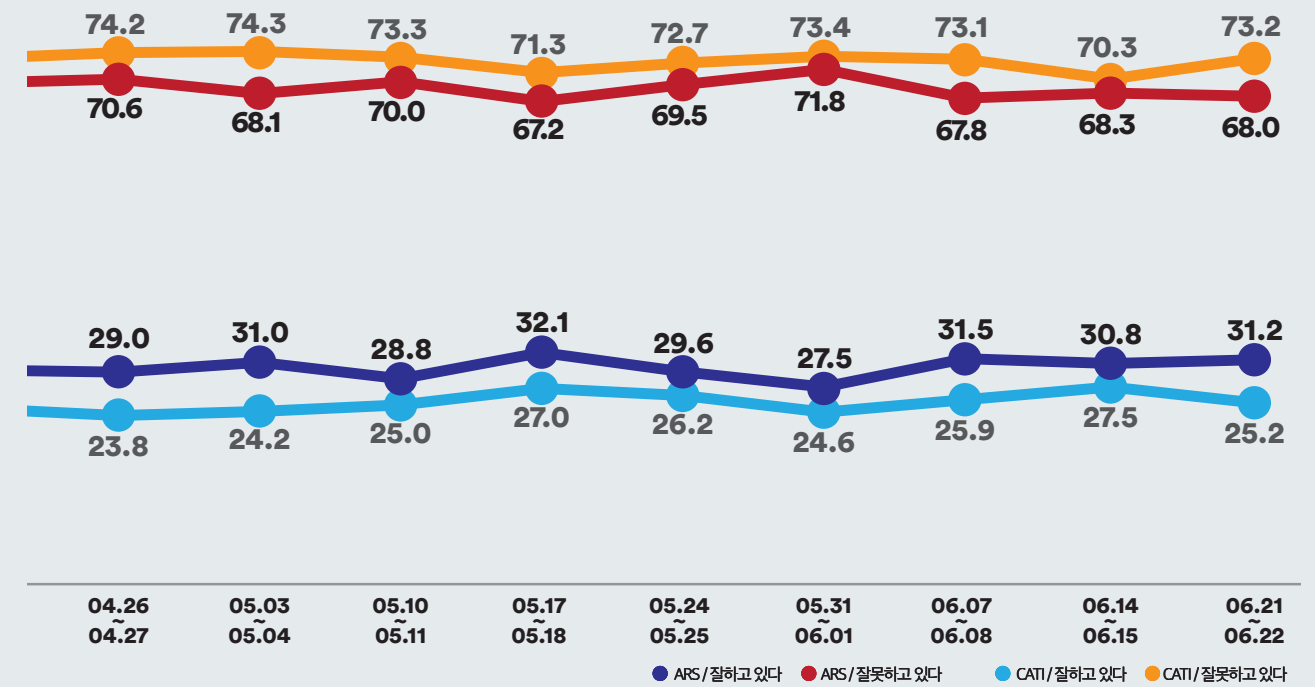
지난 86차 ARS조사 대비 '긍정' 평가 0.4%p 상승, '부정' 평가 0.3%p 하락(격차 36.8%p)

CATI 조사의 TK권을 제외한 두 조사의 나머지 권역, 남·녀 모두, 60대 이하 연령층에서 '부정' 평가 우세

중도층의 평가 간 격차는 CATI 63.3%p(지난 조사: 54.0%p), ARS 45.4%p(지난 조사: 48.0%p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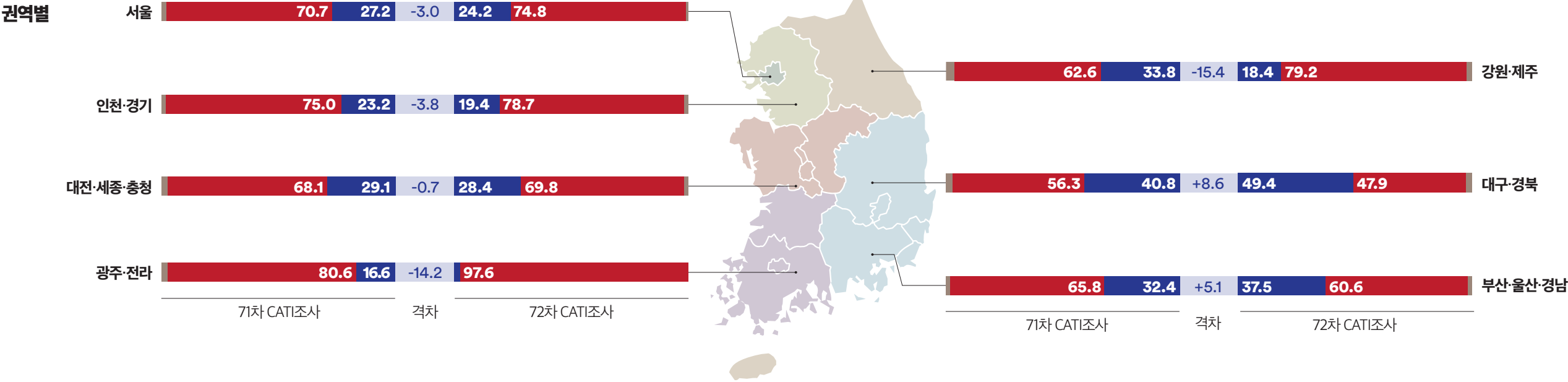
주차별 국정운영평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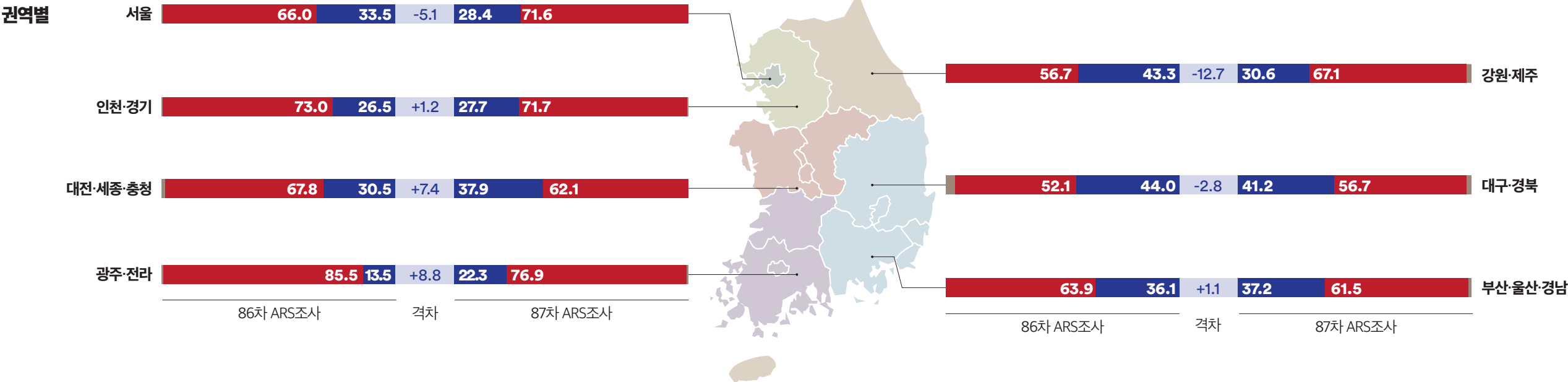
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

Q.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
CATI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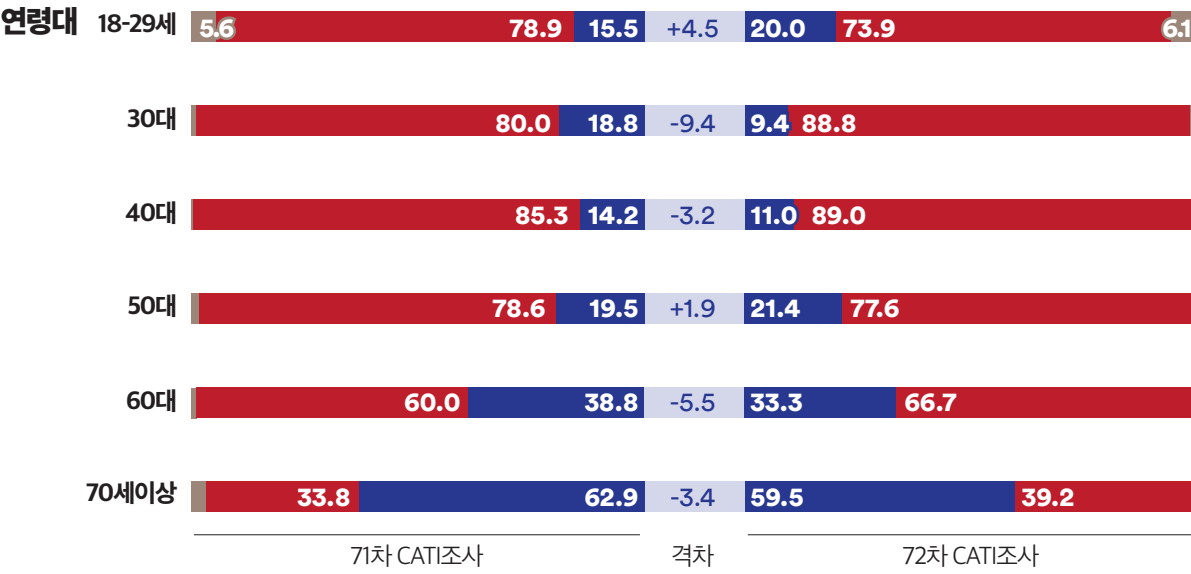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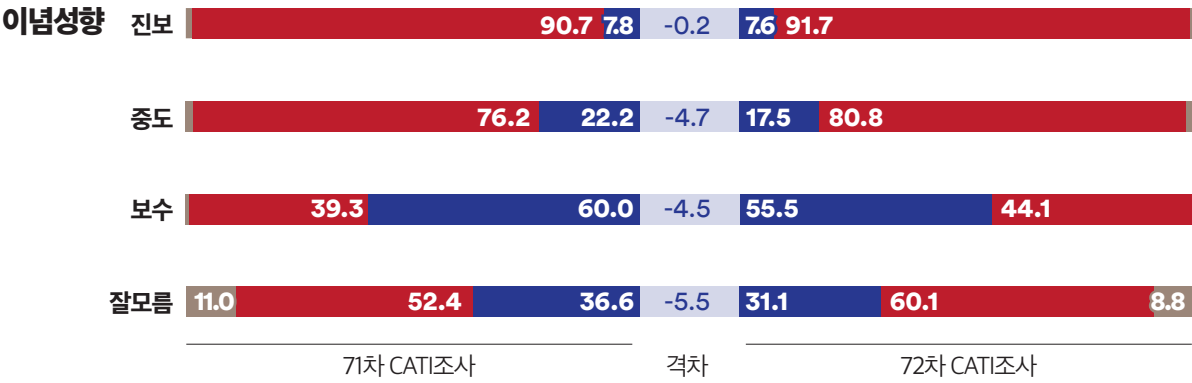
AR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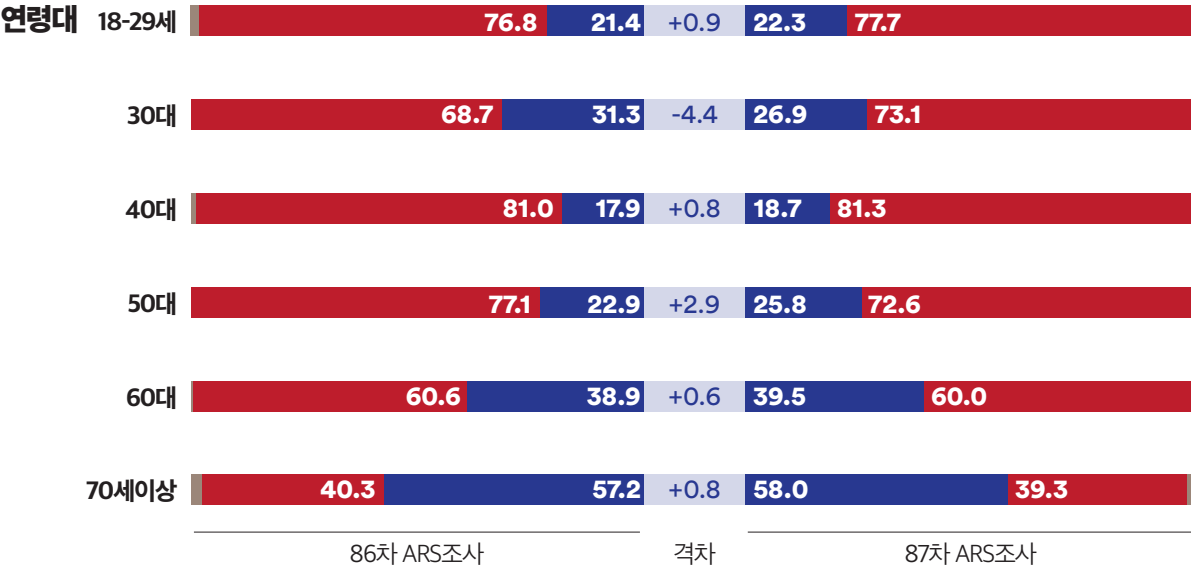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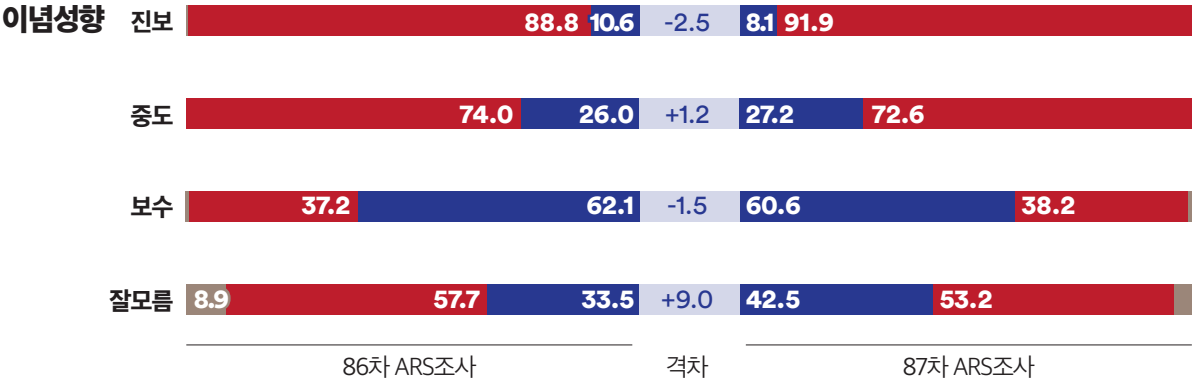
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

Q.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
CATI



ARS



격차

잘하고 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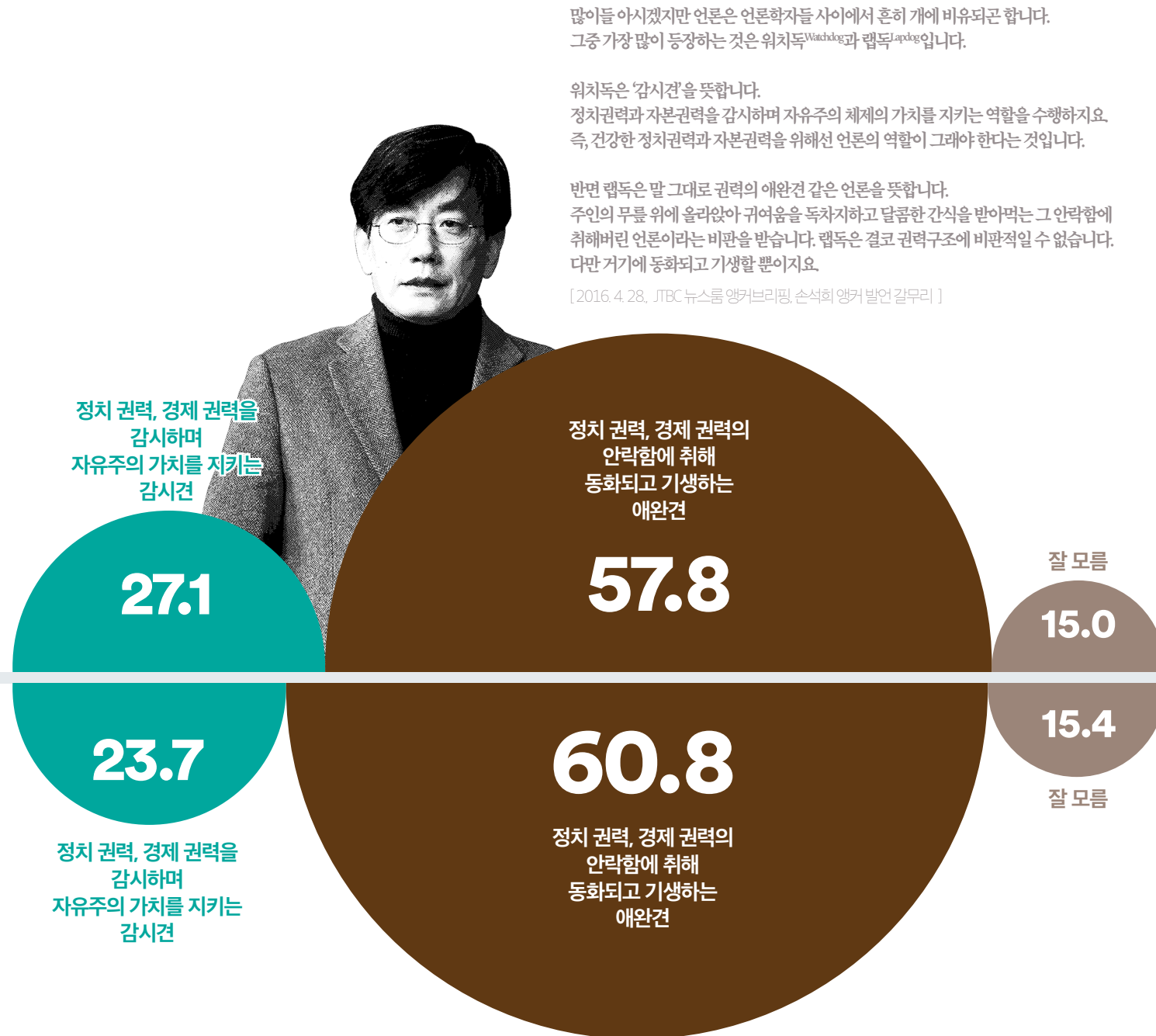
잘못하고 있다

모르겠다

Q. 우리나라 언론에 대한 다음 두 비유 중 무엇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CATI

ARS



정치 권력, 경제 권력을
감시하며
자유주의 가치를 지키는
감시견

정치 권력, 경제 권력의
안락함에 취해
동화되고 기생하는
애완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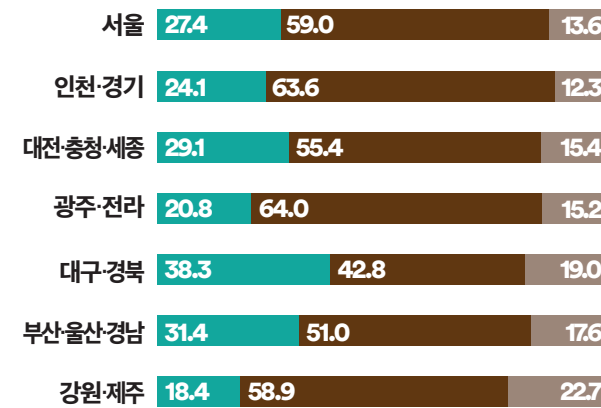
잘 모름

15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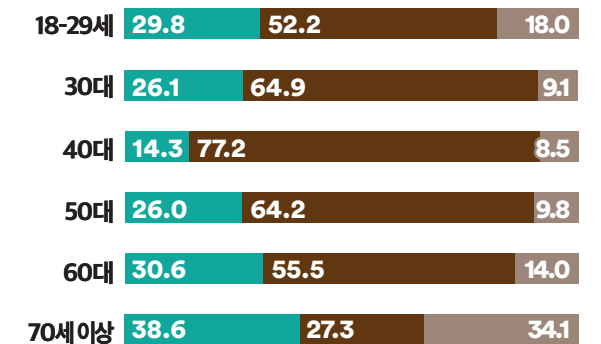
15.4

잘 모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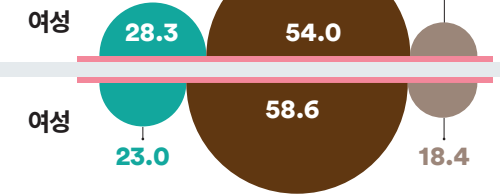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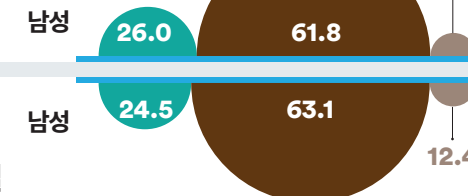
권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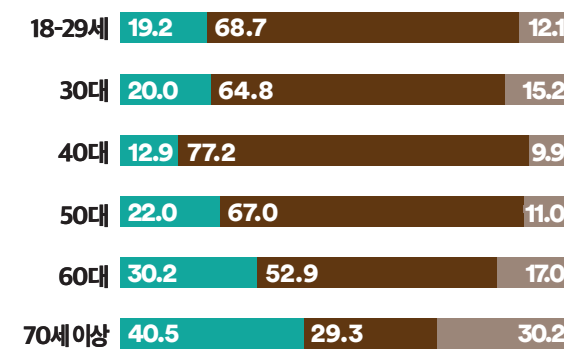
연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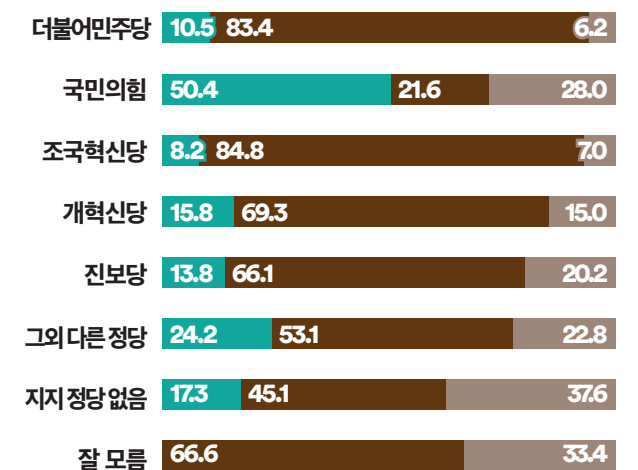
성별



연령



정당지지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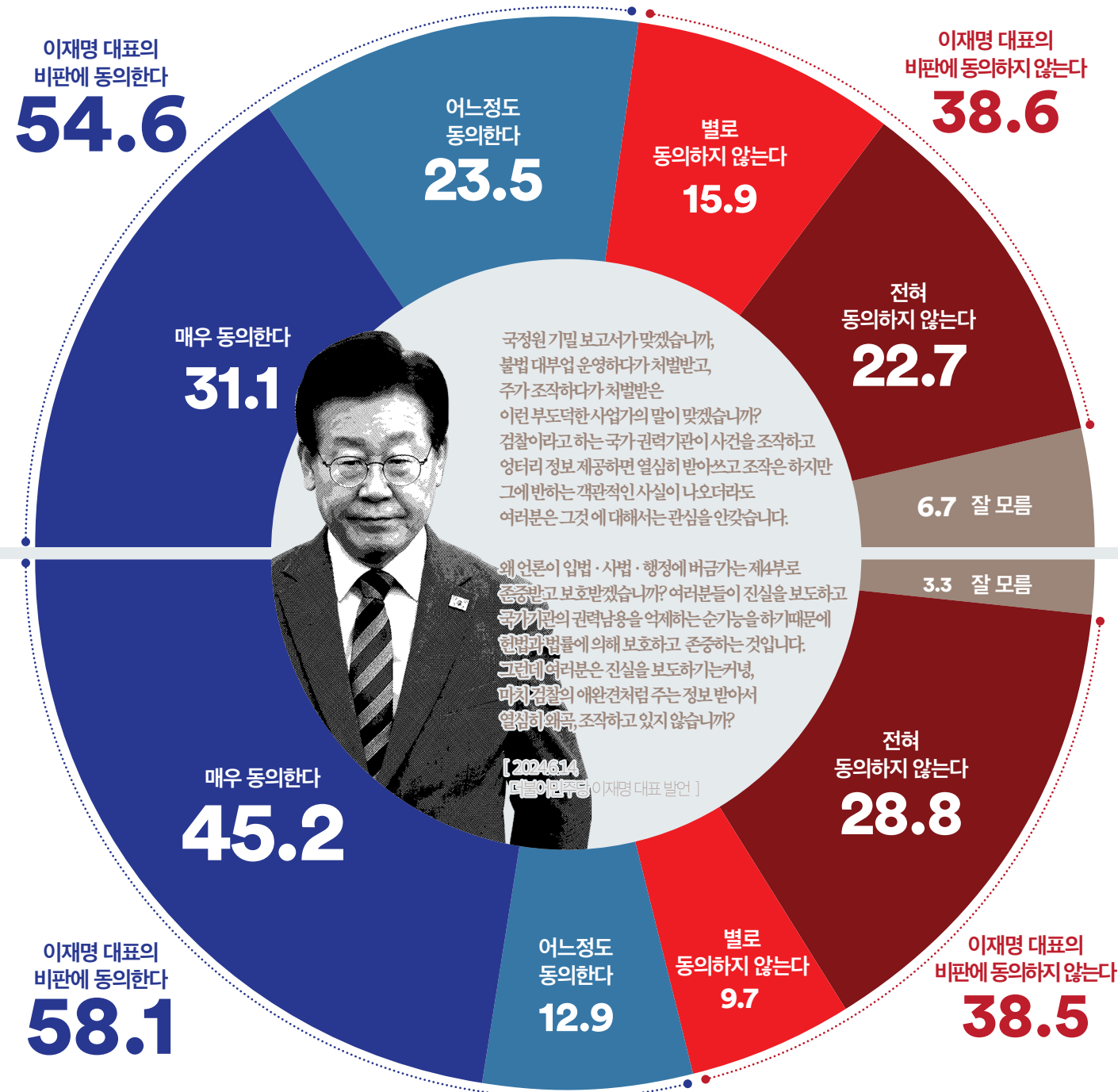
감시견 애완견 잘 모름

10명 중 5~6명은 언론에 대한 비유로 '권력의 애완견'이 적합하다고 응답
두 조사 모두 '권력의 애완견'이란 응답이 압도적 우세(응답 간 격차: CATI: 30.7%p, ARS: 37.1%p)
60대 이하 연령층 및 남·녀 모두 '권력의 애완견'이란 응답이 우세
진보층·중도층 및 더불어민주당·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'권력의 애완견'이란 응답이 우세
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'자유주의를 지키는 감시견'이란 응답이 우세
보수층의 경우, CATI 조사는 '자유주의를 지키는 감시견'이란 응답이 8.5%p 앞서고, ARS 조사는 '권력의 애완견'이란 응답이 6.3%p 앞섬

Q.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해
 “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처럼 검찰의 시각으로만 사안을 보도한다”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,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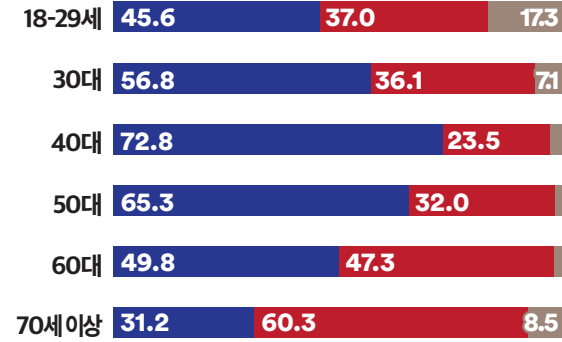
CATI

AR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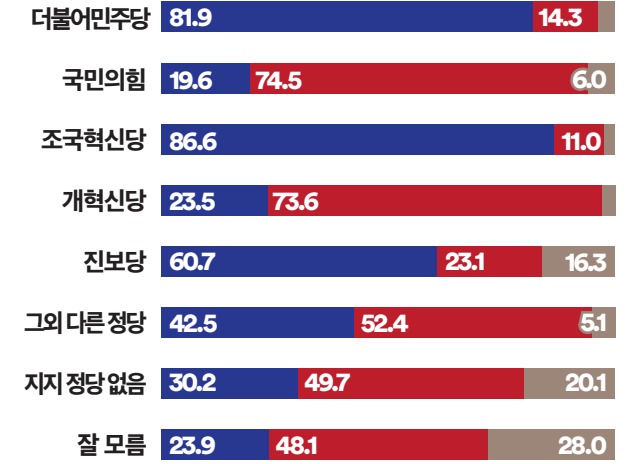


두 조사 모두 응답자 절반 이상은 ‘이 대표 발언에 동의한다’고 응답(응답 간 격차: CATI 16.0%p, ARS 19.6%p)
 60대 이하 연령층, 진보층·중도층,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는 ‘동의한다’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
 보수층 및 국민의힘 지지층, 70세 이상에서는 ‘동의하지 않는다’는 응답 우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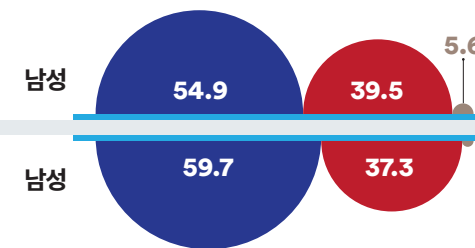
연령



정당지지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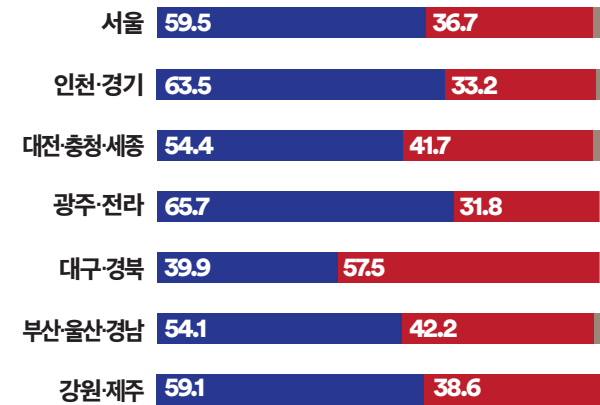
성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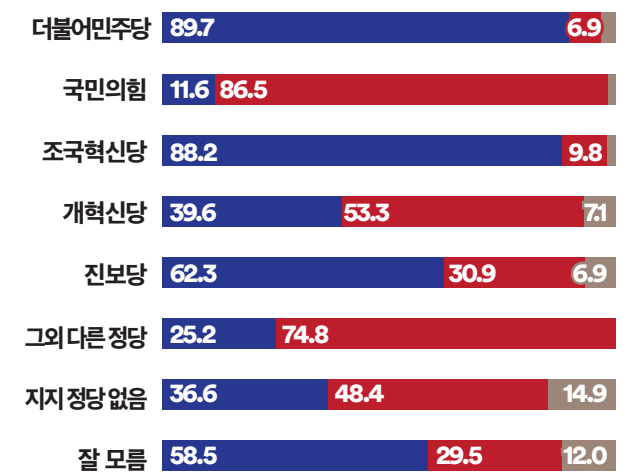
성별



권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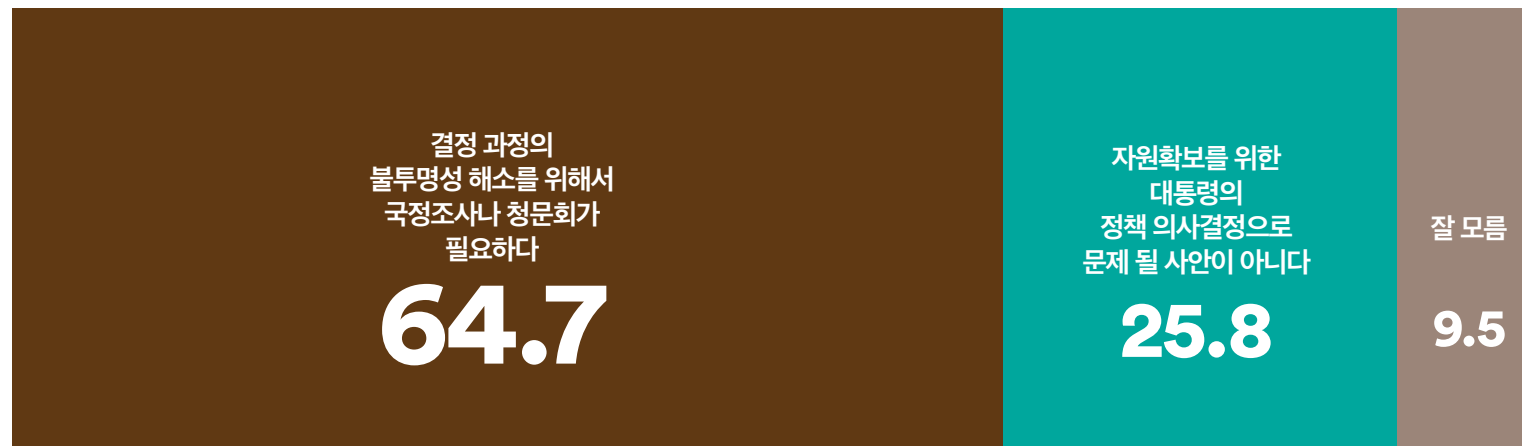
정당지지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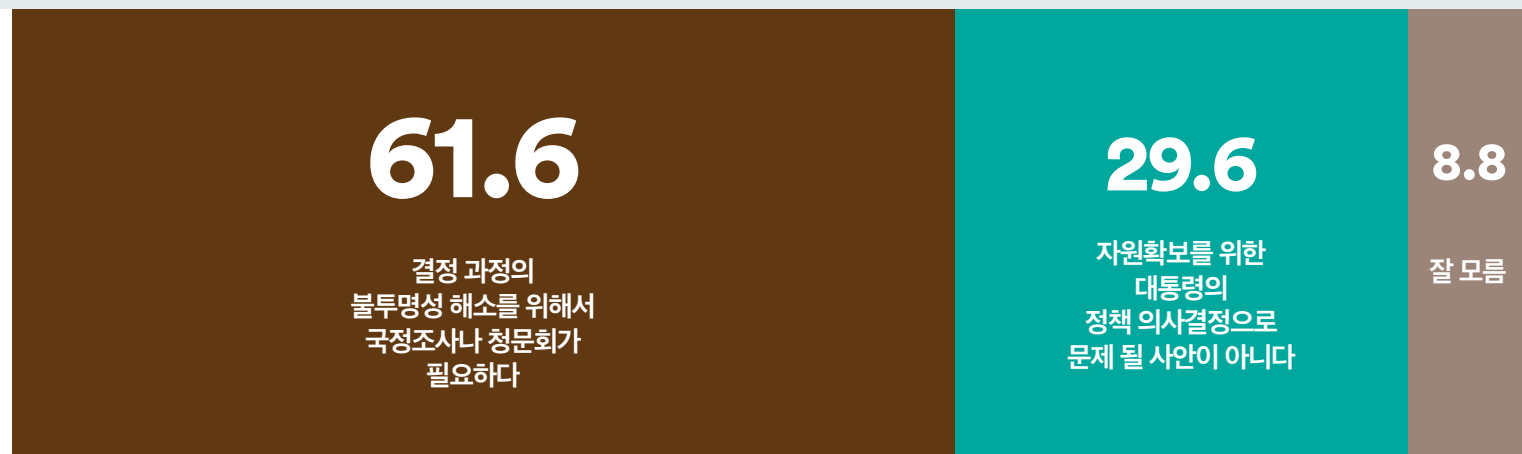
■ 동의한다 ■ 동의하지 않는다 ■ 잘 모름

Q. 산업통상자원부는 “동해 석유에 최소 5번 시추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대통령이 승인했다”고 발표했으나 야당은 “대통령이 단계적 검증 없이 5차까지 미리 승인한 것은 잘못된 결정”이라 주장하는데요,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CAT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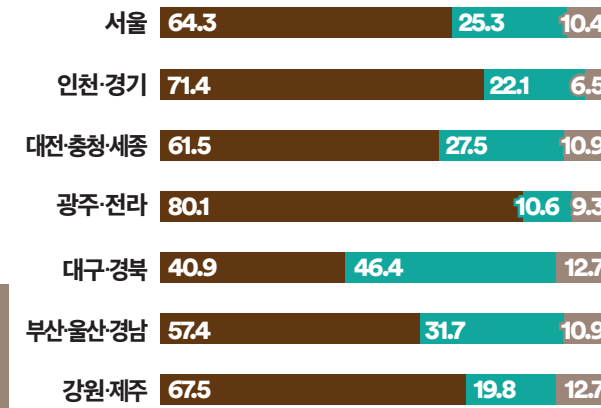


AR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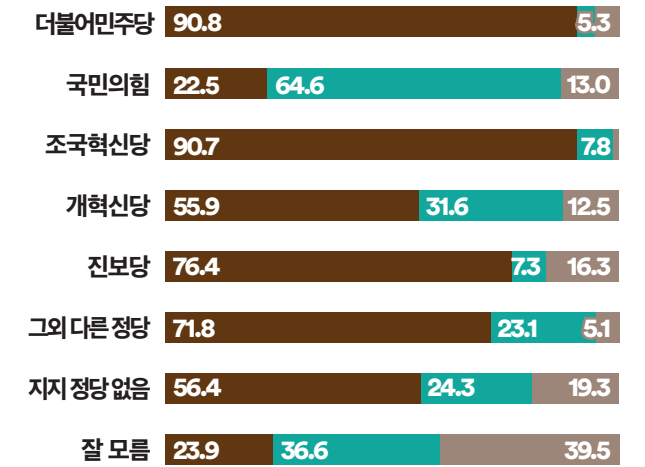


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은 ‘국정조사나 청문회가 필요하다’고 응답, 압도적 우세(응답 간 격차: CATI 38.9%p, ARS 32.0%p)
CATI 조사의 TK권을 제외한 두 조사의 나머지 권역에서 ‘국정조사나 청문회가 필요하다’는 응답이 앞섬
6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‘국정조사나 청문회가 필요하다’는 응답이 우세
70세 이상은 ‘문제 될 사안이 아니다’라는 응답이 앞섬(응답 간 격차: CATI 14.6%p, ARS 5.1%p)
‘국정조사나 청문회가 필요하다’는 응답은 더불어민주당·조국혁신당 지지층, 진보층·중도층에서 우세
보수층 및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‘문제 될 사안이 아니다’라는 응답이 우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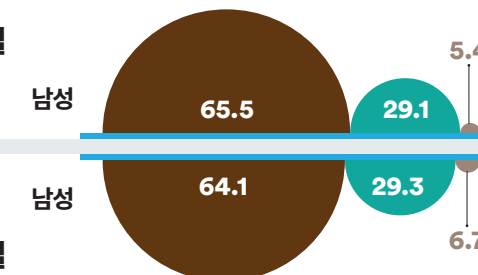
권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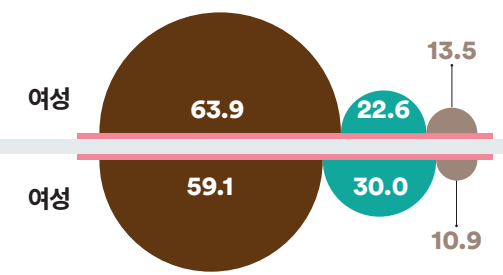
정당지지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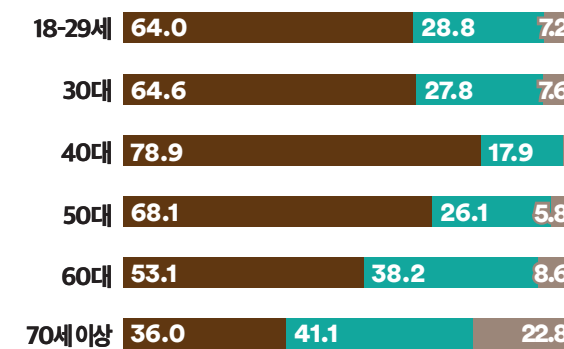
성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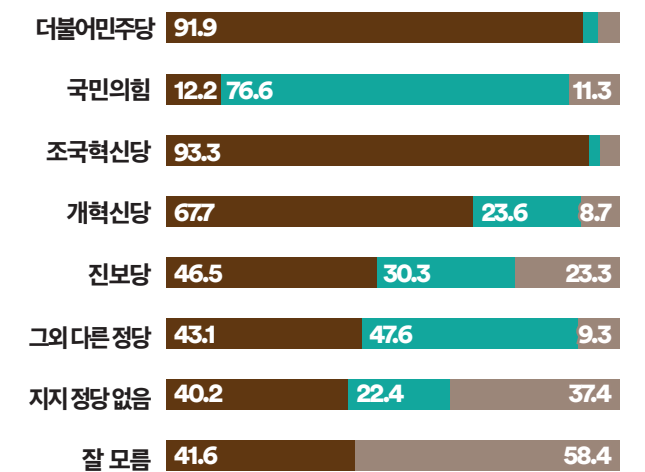
성별



연령



정당지지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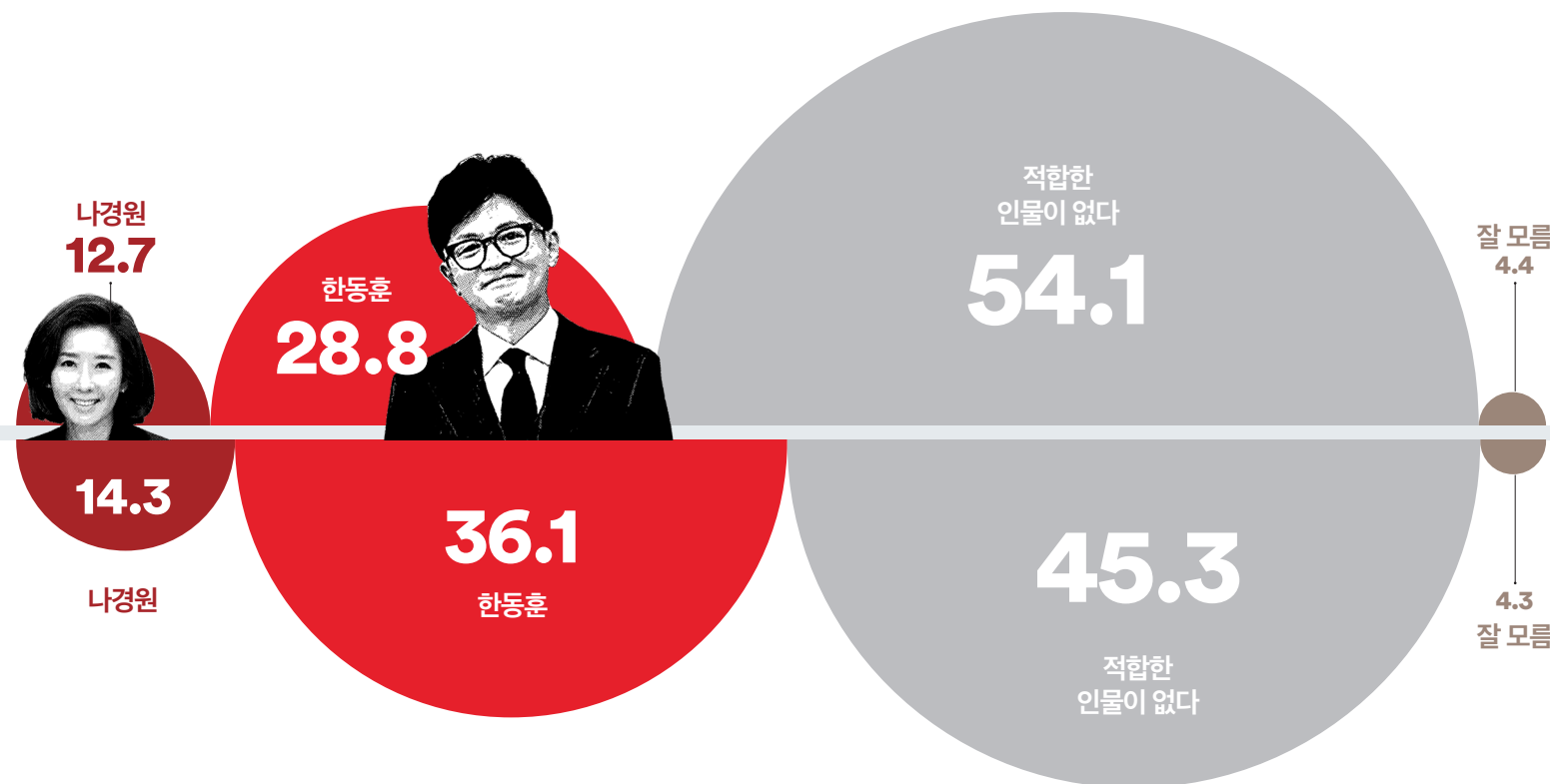


국정조사나 청문회가 필요하다 문제 될 사안이 아니다 잘 모름

Q. 만약 다음 두 인물이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양자 대결을 한다면 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CATI

AR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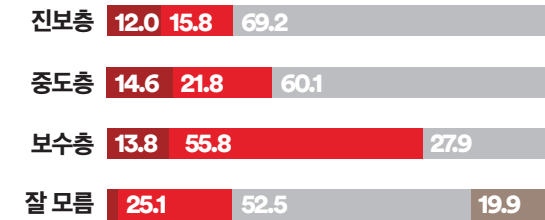
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관련, '나경원'의원 과 '한동훈' 전 비대위원장간의 양자 가상대결에 대해 물어본 결과 '적합한 인물이 없다'는 의견이 과반정도로 나타났고, '한동훈' 전 비대위원장이 우세를 보임(두 후보간 격차: CATI 16.1%p, ARS 21.8%p)

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0%이상이 '한동훈'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(두 후보간 격차: CATI 58.8%p, ARS 57.8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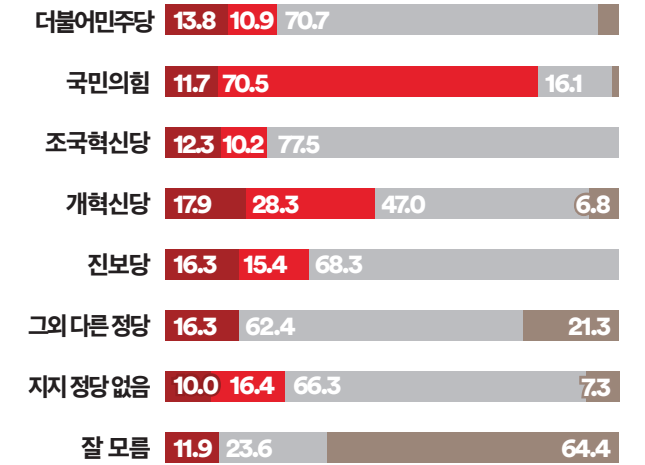
보수층에서도 '한동훈'이 더 큰 지지를 얻고있으나 국민의힘 지지층의 격차보다는 소폭 낮음(두 후보간 격차: CATI 42.0%p, ARS 42.0%p)

두 조사의 모든 연령대에서 '한동훈' 전 비대위원장이 더 적합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, 70세 이상에서는 압도적 우세를 보임 (70세 이상 응답자의 응답간 격차: CATI 35.1%p, ARS: 29.5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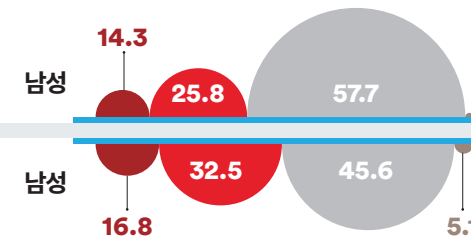
이념성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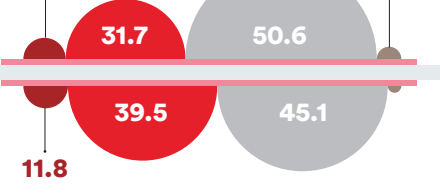
정당지지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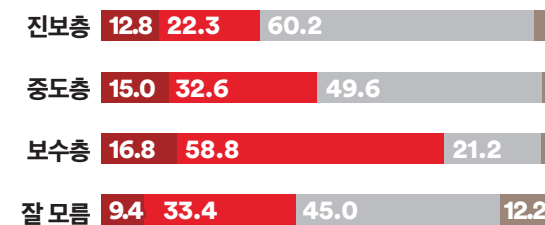
성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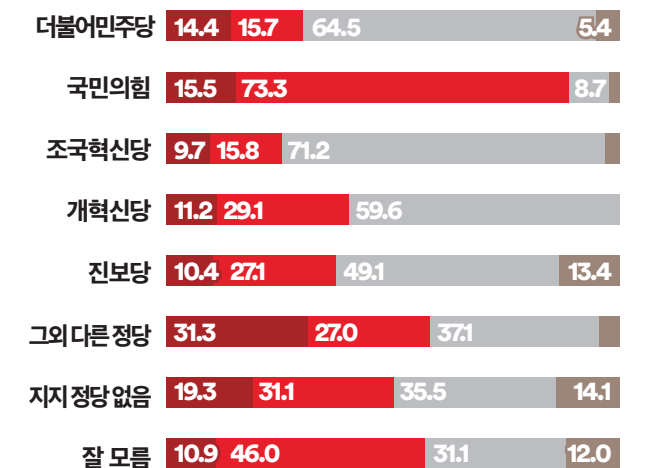
성별



이념성향



정당지지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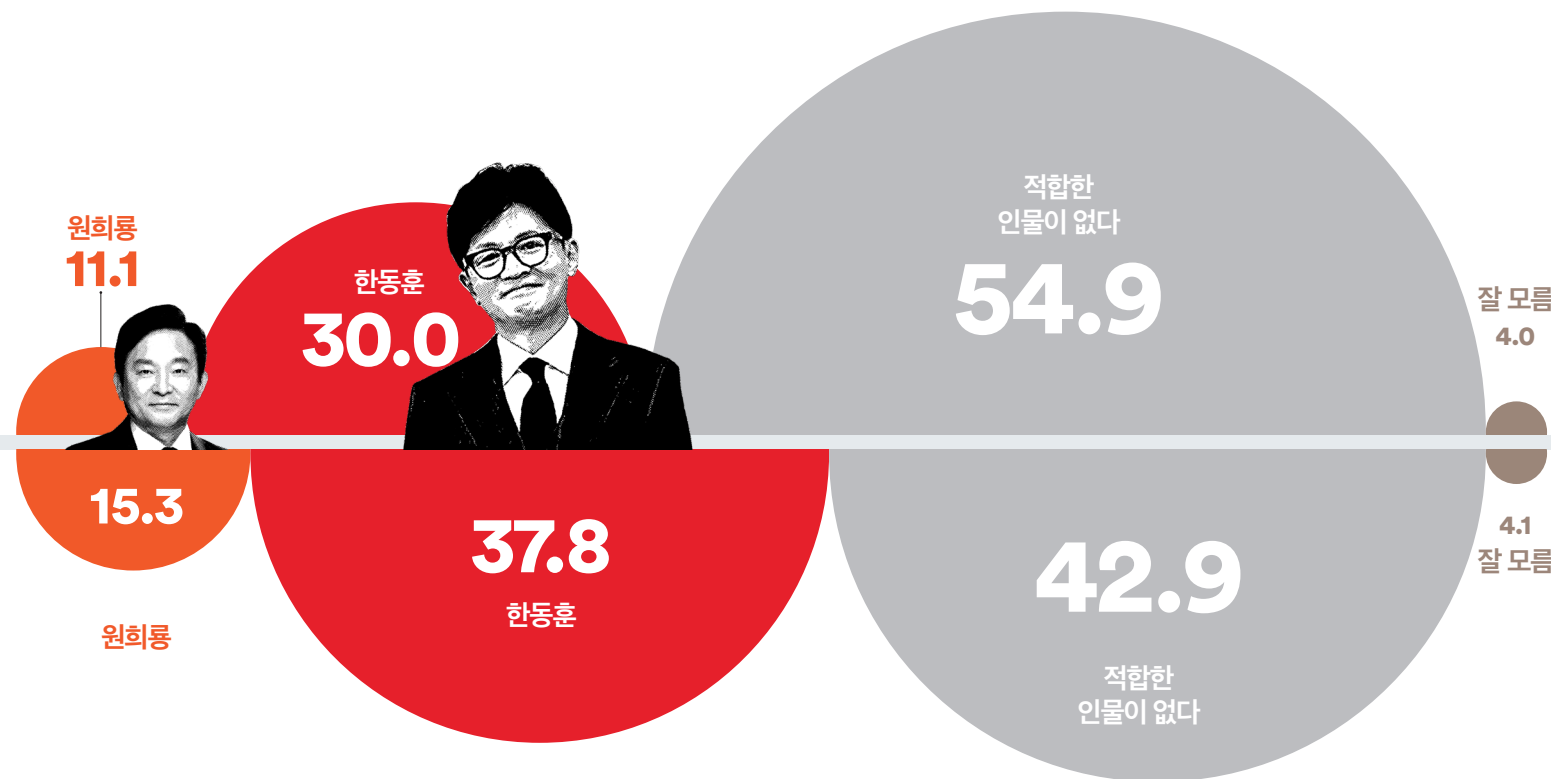
■ 나경원 ■ 한동훈 ■ 적합한 인물이 없다 ■ 잘 모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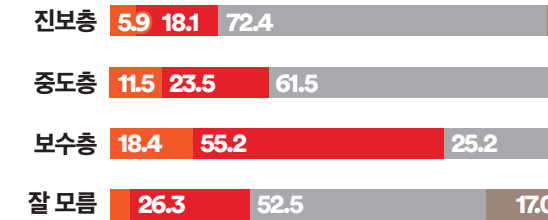
Q. 만약 다음 두 인물이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양자 대결을 한다면 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CAT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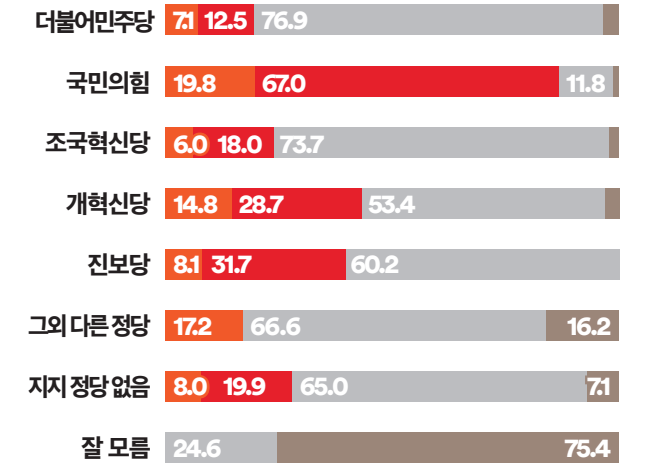
AR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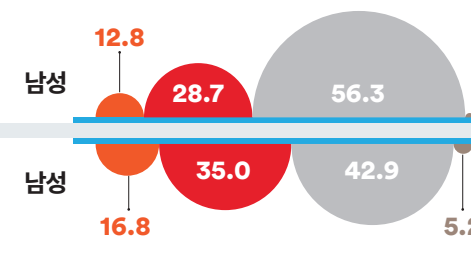
이념성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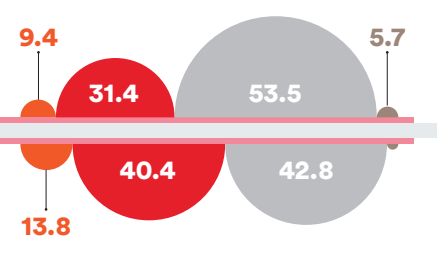
정당지지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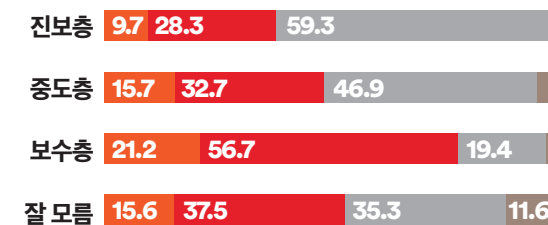
성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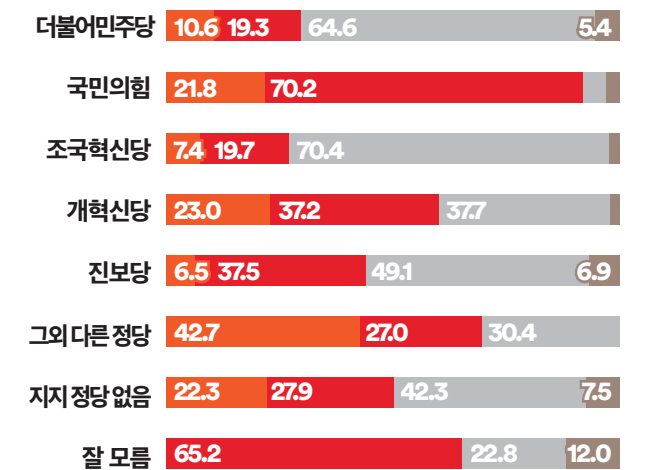
성별



이념성향



정당지지도



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관련, '원희룡' 전 장관과 '한동훈' 전 비대위원장간의 양자 가상대결에 대해 물어본 결과 '적합한 인물이 없다'는 의견이 10명중 4~5명 정도로 나타났고, '한동훈' 전 비대위원장이 우세를 보임(두 후보간 격차: CATI 18.9%p, ARS 22.5%p)
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0% 정도가 '한동훈'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(두 후보간 격차: CATI 47.2%p, ARS 48.4%p)
보수층에서도 '한동훈'이 더 큰 지지를 얻고있으나 국민의힘 지지층의 격차보다는 소폭 낮음(두 후보간 격차: CATI 36.8%p, ARS 35.5%p)
두 조사의 모든 권역, 연령대에서 '한동훈' 전 비대위원장이 더 적합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
특히, 70세 이상에서는 압도적 우세를 보임 (70세 이상 응답자의 응답간 격차: CATI 37.6%p, ARS: 24.1%p)

원희룡 한동훈 적합한 인물이 없다 잘 모름

WWW.
FLOWERRESEARCH.
COM

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

WR_202406_04
